

제2권 미주문화

2008
봄호



미주한국문화학회

Korean Literature of America

■ 특집 I / 고원시인 추모 ■

- | | |
|-------------------------|-----------------------|
| 10 고원시인의 악력 | 20 배화경 권위주의를 허문 제자 사랑 |
| 12 고원시인의 유작시와 시조 | 25 장태숙 원로 시인 고원 교수님을 |
| 16 송상옥 고원 선생을 기림 | 찾아서 |
| 18 박성희 먼저 와서 꽃을 키우는 발차림 | 34 조옥동 고원 시인의 작품 감상 |

■ 특별기고 ■

- 44 김현자 한국시의 원형적 동일성과 상상력의 변용
 67 김종희 서사적 알개의 네 가지 층위 - 최근 한국 소설 문학의 동향
 72 홍용희 오늘날 한국 시단 지형도의 특성

시/시조

- | | |
|-----------------------|------------------------|
| 81 강성재 파문 | 119 오정방 기도 |
| 84 강화식 포아즌 (Poison) | 120 윤석훈 중국산 가루 |
| 86 권태성 야 앞세들의 일생 | 121 윤종길 사는 동안 간헐히 • 2 |
| 88 김경용 동상 (Statues) | 123 윤취운 델루스의 출렁다리 |
| 89 김내수 생의 자국과 영혼의 흔적 | 124 마 윤 시내 |
| 91 김모수 대화 (對話) 의 집 | 125 이성열 뒤꿈치 |
| 93 김산용 민달팽이 | 127 이윤홍 봄맞이 |
| 95 김영교 춤추는 풍경 | 129 임혜신 차하철 |
| 97 김인자 시 (詩) 속으로 잠입하네 | 131 장선영 비움 |
| 99 김희주 피검사 | 132 장효정 꽃잎 |
| 101 박영호 흔적 | 133 정국희 차음과 모음이 겹쳐 보인다 |
| 103 박복수 보행 | 135 정용진 설매부 (雪梅賦) |
| 104 배정웅 데스 마스크 | 267 지하선 봄비 오는 밤 |
| 106 백선영 지도와 지구본 | 137 조영철 땅계 |
| 108 반재무 바침목 | 139 조주현 그때 그것을 알았다면 |
| 109 서용덕 깨어나는 날 | 141 차신재 내비의 노래 |
| 110 석상길 데스 밸리 | 142 채수옥 보우 강의 고뇌 |
| 111 석정희 튜립 | 144 최석봉 때밀이 아버지 |
| 112 송석증 연어 | 146 최익철 신호등 |
| 114 송정룡 동굴 속의 생불 | 148 추은진 파마하는 날 |
| 116 신소피아 산타야나의 봄 | 149 한민희 풍향 (風向) |
| 117 안연혜 해맞이 | |



제목:봄바람

권두언 / 고원 선생님 영전에 김동찬	6
계간 <미주문학> 신인상작품모집	표2
계간 <미주문학> 구독 안내	4
문협소식	343
편집 후기 / 편원	350
표지사진 / 정혜정(아동문학)	표지

수필	151 강정실 중년아혼	168 이정아 명창(名唱)들의 절창(絶唱)
	155 김우영 모가지가 길어서 행복한 짐승아메!	172 이준혜 친구
	161 김주원 컴퓨터세대를 바라보며	176 정순옥 사랑의 종소리
	165 이상옥 필립스 컬렉션 (The Phillips Collection)	180 정찬열 술 익는 마을
		183 최자 막내고모
		188 최순봉 환명의 혼란

소설	192 백남규 장통을 좁는 여자	229 조정희 시인의 봄날
	212 연규호 소록도(少鹿島)길(道)	249 최정열 극무의 초인

아동문학	274 동화/김일홍 가을 운동회
	283 동시/정혜정 풀잎 하나

미주문학신인상 발표

269 사조 / 그레이스리 새

계간평	323 정호승 미주문학 (07 겨울호)의 시
	328 임현영 미주문학 (07 겨울호)의 산문

■ 특집 II / 미주문단 순례-캐나다 한인문인협회 ■

284 원옥재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의 발자취	301 이금실 도마 위의 바다
288 신영용 내가 사는 캐나다	303 이상복 숭산(崇山)과 석천(石泉)
■ 시	305 이시현 벚꽃 지던 날
292 김형주 올리브-알매	307 조정대 소풍길 재마가 어떻습니까
294 노승문 다정한 사십	■ 수필
296 박영민 블루어* 연가(戀歌)	309 손정숙 얼음 호텔(Ice Hotel)
298 변창섭 後記	312 장정숙 정(情)
299 유정자 관계	■ 콩트
	316 장명길 어떤 관계

계간 <미주문학> 구독 안내

계간 <미주문학>은 우리의 자산
모두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

<미주문학>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요, 발표의 장입니다. <미주문학>이 1년 네 번 발행되는 계간지로 정착되었음은 아비다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문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미주 문학인들의 발표 지면이 늘어난 것을 뜻하며, 곧 우리 모두의 창작 의욕을 돋우고, 전체 문학계의 활성화로 직결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회원들을 비롯한 미주 문학인들을 위한 일입니다.

아울러 계간 <미주문학>이 회원들끼리만, 미주 문학인들끼리만 나눠 보는 회원지, 또는 동인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문학 애호가들도 볼 수 있도록 일반 판매를 위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 편집 제작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계간 <미주문학>의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 그리고 주위의 문학 애호가들에게도 정기구독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 번(호)의, 또는 여덟 번(호)의 책값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저 계간 <미주문학>을 위해 찬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계간 <미주문학>이 잘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모두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문학인들에게 계간 <미주문학>에의 지원을 거듭 요청합니다.



미주한국문인협회

<찬조자 및 정기구독자 명단은 매달 문협월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